

서효인의 '소설처럼'



겨울 이불 안에서 -안녕달 그림책 '겨울 이불'

설날이면 할아버지 손을 잡고 큰집 큰할아버지댁에 갔다. 오는 순서는 매번 달랐지만 모두 모이면 도대체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십수 명의 사람이 너른 마당이 있는 집에 모여 떡국을 먹고 전을 먹고 웅성거리고 수련거렸다. 이를 위해 누군가는 (주로 여성은) 먹은 걸 차리고 먹은 걸 치우는 노동을 반복해야 했다는 부조리한 사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다. 그리고 그때는 어린 나이가 아닌 사람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듯하다. 어쨌거나 모르는 거는 모르는 것으로 뒤도 아직 괜찮을 나이에 서 그랬는지 설날은 즐거웠다. 지금은 소식조차 알 수 없는 또래 친척들이 방 하나를 차지하고 큰집에 있는 이불이라는 이불은 다 꺼내 놓고 킁킁 킁킁 놀았다. 이불을 높게 쌓아 거기에 뛰어들었다. 어쩌다 혼자일 때면, 이불 안에 파고들어 거기에 깃든 은은한 아들을 빌려 아이다운 꿈도 꿔던 것 같다. 휴대전화도 게임기도 심지어 텔레비전도 없는 그 방에서 우리는 무엇이 그리 즐거웠을까. 이불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즐겁지는 않았을 것 같다.

다. 할머니가 손바느질한 두꺼운 솜이불일 것이고, 그게 목화솜이면 더욱 좋을 테다. 그런 이불은 그림책에서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들어서자마자 보인다. 방은 이미 발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데워져 있다. 윗목에는 꿀과 꿀꺽질이 놓였고, 벽에는 아이가 더 어릴 때 그렸을 직한 낙서가 있다.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집에 자주 왔던 것으로 보인다. 홀러당홀러당 걸음을 뚫고 스텝없이 이불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에서..... 온갖 것들을 만난다. 겨울 이불 안에는 바깥과는 다른, 특별한 세계가 있으니까. 그 특별한 세계는 나와 다른 것들에 경계와 혐오를 보이지 않고 그저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를 건네는 아이에게만 보인다. 그곳에는 곰과 너구리, 물개와 다람쥐, 개구리와 거북이 등등이 꼭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뜨거운 온돌 위에서 몸을 지지고 있다. 아니 그런 찜질방처럼 보이기도 한다. 귀여운 동물들이 찜질방에 모여 있는 것이다.

겨울 이불 안에서의 상상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아랫목 깊은 곳에 밥공기는 거대한 육조가 되고, 곰에게 얻어온 식혜는 꿈공인 호수가 된다.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이 만나고 가장 차가운 데와 가장 뜨거운 데가 닿는다. 다양한 그림체와 절묘한 의성어와 감탄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할아버지 손 잡고 설날 큰집에 먼저 도착해 다른 친척을 기다리던 과거의 나로

돌아간 것만 같다. 크리스마스 전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무겁고 두꺼운 이불 안에 숨어 산타를 기다리던 밤이 떠오른다. 겨울 이불은 어떻게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불러내는 것이다. 거기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있다면, 곰과 너구리와 다람쥐와 거북이가 함께 굴을 까먹는 장면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거기에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있다면.

이제 설날이 되어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 두 분은 이제 세상에 없고, 나는 이불 안에 들어가면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그저 잠들거나, 내일의 걱정에 이리저리 뒤척일 뿐이다. 대신에 아이들은 우리 부부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설날이 되어서야 겨우 만난다. 부모님은 아파트에 살고, 아이들은 두꺼운 이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듯하다. 그럼에도 아이는 이불 안에서 쫓아내는 걸 좋아한다. 옛집 같은 온돌은 아니지만, 이불 안에 밥공기는 없지만, 예전처럼 겨울이라고 골만 먹는 건 아니지만, 아이에게는 내가 모르는 아이의 상상의 만들어진 세계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있었지? 그렇게 생각하니 문득 우리 어머니의 눈주름이 돌아간 신 외할머니의 눈주름과 꼭 닮아 보인다. 이불 안에 들어가 소곤소곤 할머니를 불러 봐야겠다. 설날 즈음에 내리는 새하얀 함박눈이, 꼭 세상 모든 할머니의 대답 소리 같겠다. <시인>

社說

최강 한파 속 '난방비 폭탄' 서민 시름 커진다

설 연휴부터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시민들은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한 결과 예년과 비슷한 실내 온도를 유지했는데도 난방비가 50%에서 배 가까이 폭등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고지서 인증샷과 함께 원성이 쏟아졌다.

설날이 가까워질수록 겨울철 최고 한파가 밀려 오면서 난방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도시가스 요금 추가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가뜰이나 고물가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난방비 폭등은 서민 가정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은 생활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가스 요금이 오르면 난방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올겨울 난방비가 급등한 것은 가스 요금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수도·가스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3.2% 올랐으며, 특히 도시 가스는 36.2%나 상승했다. 여기에 날씨까지 추위되면서 각 가정에서 체감하는 난방비 상승폭은 훨씬 가파르다. 전기 요금도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kWh당 19.3원 오른 데 이어 이달 들어 또다시 13.1원 인상됐다. 전기난로나 전기장판, 온풍기 같은 난방 장치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비 인상 체감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는 '난방비 폭탄'의 원인을 전·현 정권에 돌리며 책임 공방에만 골몰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가스·전기 요금 인상을 억눌러 온 만큼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서민 부담을 감안하면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할인을 확대하고 에너지 이용권(바우처) 지원 예산을 늘려 추위에 고통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혁신도시 지역 인재 채용 의무 비율 넘겼지만

광주·전남이 공동 조성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지역 인재 채용에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기관 13곳이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출신 228명을 채용해 지역 인재 의무 채용률은 35.1%를 기록했다.

다. 지난해 기준 61.3% 기록한 강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권고하는 지역 인재 의무 채용률 30%를 넘긴 것이지만 전국 13개 도시 130개 이전 기관의 평균 의무 채용률 38.4%에는 못 미친다. 정부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신규 채용 시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2018년 18%에서 지난해 30%까지 매년 3%포인트씩 상향했다.

문제는 채용률 증가에도 실제 채용 인원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인재 채용률이 늘어난 것은 분자가 커져서가 아니라 분모가 작아져서 생긴 통계 착시 때문이다. 지난 3년 동안 빛가람 혁신도시 지역 인재 채용 인원은 167명(42%) 줄었는데도 같은 기간 채용률이 24.6%에서 35.1%로 10.5%포인트 상승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배정된 의무 채용 인원이 961명(58%)이나 급감한 탓이다.

이제 정부가 권고하는 지역 인재 의무 채용률 30%를 넘긴 것이지만 전국 13개 도시 130개 이전 기관의 평균 의무 채용률 38.4%에는 못 미친다. 정부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신규 채용 시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2018년 18%에서 지난해 30%까지 매년 3%포인트씩 상향했다.

질적 측면에서도 문제인데 전국 최대 공공기관 한전의 지난해 지역 인재 채용률은 30.6%로 빛가람 평균에도 못 미친다. 이년 마다도 정부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차원에서 올해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정원을 1569명 줄일 계획이다. 의무 채용 비율도 좋지만 분모에 해당하는 의무 채용 인원 배정을 줄이지 않는 것이 제도를 살리는 근본 대책이 될 것이다.

無等鼓

비디오 플레이어는 한때 모든 가정의 필수품이었다. 우리 집의 경우 언제 비디오 플레이어를 들여놓았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대여점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 감상했던 수많은 영화들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다. 아마도 지금 장르 구별 없이 잡다하게 영화를 보는 습관은 이때 만들어진 건지도 모른다. 물론 좋아하는 가수가 출연하는 음악 프로를 녹화해 수 없이 돌려보며 '덕심'을 키울 수 있었던 것도 비디오 플레이어 덕이었다.

꾸며진 전시장을 채운 건 1980년대~2000년대까지 제작된 2만 7000점의 비디오 테이프와 '스크린' '로드쇼' 등 잡지, 영화 포스터, 전단지 등이다.

그중에서도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를 찾아 비디오 가게를 순례했던 일이다. 당시 유명 체인이었던 '영화마을' 각 지점을 찾아다니며 '복복서로 진로를 돌려라' '현기증' '이장' 등 히치콕의 작품을 하나씩 대여해 감상하는 즐거움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었다. 당시는 모두 '비디오 카드'였던 시절이다. '키노' 등의 잡지를 통해 정보를 얻고 '필견 리스트'를 작성하곤 했다.

놀라운 점은 '일일 한 편씩 77일이 걸리는 비디오 컬렉션'이 단 '한 사람'의 수집품이라는 것이다. 주인공은 '20세기 소설 영화 독본' 등을 꾸준히 열고 있는 광주 영화인 조대영 씨다. 전시 후에도 개인의 소장품에 머물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돼 쓰임새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원초적 비디오 본색' 전(2월 19일까지)에 가면 모두 자신만의 '비디오 카드' 시절을 떠올리게 된다. 비디오 대여점처럼

비디오 룸에 들어서니 익숙한 장면과 음악이 흐른다. 주윤발의 코트다 장극영의 노래 '당낭쟁'(當年情)을 만나서 '영웅본색', 청순한 소피 마르소가 등장하는 '라붐', 안부를 묻는 일부이 '오갱기데스까(おげんきですか)'를 유명하게 만든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 레터'의 장면은 과거로의 초대장이다. 오는 27일(오후 3시)에는 '비디오 시대의 예로 영화를 말하다'를 주제로 봉만대 감독과 영화평론가 김형석의 대담이 펼쳐진다. 분명 부모님 몰래 친구들과 '에로 비디오'를 보던 추억을 떠올리는 이도 있겠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의료칼럼

명절 피로에서 일상으로



윤형조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관절 통증, 두통 등 신체적 증상과 피로와 무기력감, 불안감, 우울감, 짜증, 초조감 등 정신적 증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명절 중후군에 가장 취약한 대상은 여성, 즉 주부다. 명절로 발생하는 대부분 가사 노동이 주부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도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목과 어깨, 허리 등 관절 통증은 디스크와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음식 준비와 잦은 상차림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손목과 무릎 관절에 고통을 준다. 대부분 증상은 명절이 지난 후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일부는 특정 질환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연휴 뒤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연휴가 모두 끝난 만큼 가족 간에 직접 또는 전화 통화를 이용해서라도 수고했다는 격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필요가 있다. 자칫 연휴 기간 쌓였을지도 모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건강한 일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행위이다. 모처럼 만난 가족들이 연휴 기간 사소한 다툼이나 언쟁을 벌일 경우 발생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육체적인 고생보다 훨씬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명절 연휴가 끝났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주부들은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푸는 동작이나 더운 물에 20분 내외로 찜질을 해 손목이나 관절의 피로를 풀어주면 일상으로의 복귀가 빨라질 수 있다. 운전도 명절 내내 적추와 관절 부위를 과용하는 원인이다. 아무리 주의하더라도 장시간 귀성 또는 귀경 운전은 몸에 무리를 줄 수 밖에 없다. 고향에서 귀가한 뒤에도 매일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으로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일이 지나도 요통이 가시지 않거나 심해지면 디스크로 발전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더불어 근육과 관절 퇴행 현상이 심화되는 40~50대 중년층은 특별히 척추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평소 생활 패턴을 꼼꼼히 살펴 디스크 등 중증 질환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명절 때마다 같은 증상이 반복 발생한다면 피로감과 스트레스는 누적될 수밖에 없다. 증상이 심하면 심리 상담 부담까지 더해지면 우울증과 함께 특정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탓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

명절 연휴 뒤 피로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감 있는 말 한마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수일 이내 정신적 신체적 생활 리듬이 예전으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는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운전 등으로 인한 허리 통증이나 근육 관절 통증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대부분 회복되지만, 일부의 경우는 증상이 악화되어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

기고

'대설 행동 요령' 숙지로 안전사고 예방을



조귀임 전 초등학교 교사

은이들이 방죽대소를 하며 웃던 기억도 여전히 새롭다.

려면 먼저 뉴스나 기상청 일기예보를 통해서 대설주의보나 대설 경보가 예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쌓일 눈 높이가 5cm 이상 일 때, 대설 경보는 24시간 동안 쌓일 눈 높이가 20cm 이상 예상될 때 발표된다.

한 달 전 광주에 사상 최대 폭설로 하늘이 뚝인 것 마냥 온종일 평평 눈이 쏟아졌다. 매서운 추위까지 겹쳐 마치 설국에 온 느낌이었다. 그리고 에타게 오라는 비는 오지 않고. 지붕 위에도 나뭇가지에도 담장 위에도 전깃줄 위에도 눈이 소복소복 쌓였다. 길도 사라져서 온세상이 새하얀 눈세상이 돼버렸다. 우리집 옥상과 차양, 계단에도 40cm 이상 눈이 소복히 쌓였다. 나뭇가지에 꽃이 핀 것처럼 엷힌 눈꽃과, 눈이 굵게 엉겨 꽃처럼 내리는 눈송이도 경이롭다. 드센 바람 속에 굽어진 눈발은 이내 추위를 몰고 왔다. 눈이 금방 무릎에 닿을 만큼 쌓이고 강풍까지 휘몰아쳐 길거리에서 사람과 차량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설이 예보되었을 때는 외출을 최대한 자제되 외출 시에는 바람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해야 한다.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장갑과 목도리를 착용해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개인 차량 이용을 줄이고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차량의 연료 점검, 방한용품이나 안전장구(스노 체인, 삽, 모래주머니 등)를 준비해 두면 좋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거리를 두고 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차량이 고립될 때는 119에 신고하고, 차 안에서 TV·라디오·인터넷으로 기상 상황을 확인하며 구조를 기다린다.

살다 살다 이런 날은 처음 겪었다. 마당이 수돗물은 사흘째 썩고 얼고 수도꼭지엔 고드름이 길다랗게 매달렸다. 날마다 화실 앞에서 모이를 쪄던 비둘기 두 마리는 며칠째 어디서 졸음이 굶고 있는지 안스럽다. 저 엄청난 눈을 어떻게 치우나 걱정했는데, 인신 후한 옆집 아저씨가 며칠 동안 눈을 쓸고 치워 주셨다. 항상 웃는 얼굴에 북을 짓는 고마우신 분이시다.

내 집 앞, 집포 앞, 보행로와 지붕 및 옥상에 쌓인 눈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치워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립이 우려되는 지역은 경찰서, 관공서와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식량·연료 등 비상용품을 준비한다. 재난신고는 119, 사고 신고는 112로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운영 중이다. 대설에 대비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나기 위한 행동 요령도 안내하고 있다. 대설로 인한 재산 피해는 비닐하우스 등 사유 시설에서 집중발생한다. 이를 예방하

설 연휴에도 큰 눈이 쏟아졌다. 밝고 희망찬 새해, 2023년 계묘년에는 모두가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한다.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국민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장 崔宰豪, and other contact information.